

# 林白湖의 〈南溟小乘〉攷

尹 致 富\*

차		례	
I. 序言		1. 文學的 價値	
II. 作者紹介		2. 文獻的 價値	
III. 作品考察		IV. 結言	

## I. 序 言

〈南溟小乘〉은 1577년(宣祖 10년) 白湖 林梯가 28세 되던 해에 文科에 급제한 후 당시 제주목사인 부친 林晉에게 과거에 등제한 인사를 드리고가 하여 그 해 11월 3일 고향을 출발하여 12월 9일 제주 朝天館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과, 12월 10일부터 이듬해 2월 16일까지의 제주에서의 기행, 그리고 2월 그믐날 제주를 출발하여 3월 5일 고향에 도착하기까지의 4개월 동안의 路程을 기록한 일기체 한문 기행수필이다. 이 〈南溟小乘〉은 《白湖先生文集》의 부록으로 실려 있는 것으로, 백호의 문학세계를 확충할 수 있는 일기체 한문 기행수필일 뿐만 아니라 조선조 제주 해로에 대한 해양지리적 자료로서의 가치와 제주도 풍물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한 자료가 된다. 조선조의 제주도 풍물을 알 수 있는 작품으로는 〈南溟小乘〉 이외에도 1500년대에 지어진 冲菴 金淨의 한문

\* 濟州大耽羅文化研究所 助教

수필인 <濟州風土錄>과 1600년대작인 葵窓 李健의 한문수필인 <濟州風土記>가 있다.<sup>1)</sup> 그러나 <南溟小乘>은 <濟州風土錄>과 <濟州風土記>에 비해 제주 해로에 대한 사실들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 풍물의 기록에 있어서도 앞의 두 작품에 기록되지 않은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 문헌적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미 <南溟小乘>에 대한 고찰은 蘇在英교수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나,<sup>2)</sup> 노정기와 탐라 풍물지로서의 가치에 비중을 두어 부분적으로 고찰하였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보다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는 일정 및 지소와 인명 연구는 물론 20여수에 가까운 한시 및 <千德傳>의 삽입으로 인한 문학적 가치 및 지리·기후·역사·경승·풍속·언어·산물 등의 문헌적 가치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 II. 作者紹介

林悌는 明宗朝와 宣祖朝(1549~1587) 때의 문인으로 자는 子順이고 호는 白湖·謙齋·碧山·楓江·嘯痴이다. 본관은 羅州이며, 병마절도사 林晉의 아들이다. 그가 아버지 林晉은 1577년(宣祖 10년)에 제주목사로 도임하여 1579년 9월까지 지내다가 그 해 10월에 北兵使로 옮겨갔다.<sup>3)</sup> 그의 <南溟小乘>은 바로 그의 부친이 제주목사로 있던 이 시기에 지어진 것이다. 白湖는 소년시절을 방탕한 생활로 보냈으나 20세부터 학문에 뜻을 두고 속리산에 들어가서 大谷 成運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1576년(宣祖 9년)에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하였으며, 다음 해 謁聖文科에 乙科로 급제해서 禮曹正郎 겸 知制敎를 지내다가 동서양당의 싸움을 개탄하고 명산을 찾아다니며 여생을 지냈다. 봉건적 권위에 반항했던 인간으로서 주정적이고 자유분방한 인생 자세를 견지했으며, 시문을 통해서 낭만성을 보였던 것이다. 특히 俛仰亭 宋純의 문중에 드나들 때부터 黃眞伊와 사귀었던 白湖가 平安都事로 임명되어 부임하러 가는 길에 明月의 묘

1) 梁淳秘, “濟州風土錄과 風土記의 比較”, 《語文論志》第4·5輯, 忠南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85, pp. 47~67.

2) 蘇在英, “林悌의 <南溟小乘>考”, 《語文研究》제3권 제3호, 一潮閣, 1975.

3) 宣祖十年丁丑八月到任 越二年己卯十月北兵使移拜去 (《增補耽羅誌》, p.451.)

앞에서 글을 올려 제사를 지냈다는 이야기<sup>4)</sup>는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한다. 그는 당대의 석학 李珥·許筠·楊士彥 등과 교류했으며, 39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쳤는데, 죽기 전에 조선과 같이 좁은 땅에 태어난 것을 후회했다고 한다.<sup>5)</sup> 그의 저서로는 정치 권력을 부정적으로 보고 합리론적 세계관에 대해 회의를 나타낸 〈花史〉·〈愁城誌〉·〈元生夢遊錄〉 등의 작품과 《白湖集》 4권 2책이 전하고 있는데 이 책은 申欽과 李恒福이 서문을 썼다. 〈南溟小乘〉은 바로 《白湖集》의 부록으로 실려 있다.

### Ⅲ. 作品考察

#### 1. 文學的 價値

##### 1.1. 日記體 漢文紀行隨筆

###### 1.1.1. 日程

白湖가 제주를 향해 고향을 떠난 것은 1577년(宣祖 10년) 11월로서 그의 나이 28세 되던 해로 大科에 급제하고 난 다음이며, 한 달여가 지난 12월 9일에야 제주에 도착한다. 제주에 도착한 白湖는 석 달 가까이 제주에 체류하다 다음 해 2월 그믐날에 고향길에 오른다. 그리하여 그는 3월 5일에 고향에 도착하는데, 제주에서 고향에 도착하기까지는 제주에 올 때에 비하여 매우 짧은 시간이며, 그는 석 달 가까운 일정을 〈南溟小乘〉 속에 기술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기록은 한 달여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일정을 날짜별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577년 11월 3일 : 맑다. 宮花·玄琴·補劍 등의 행장을 지니고 부친이 길러 둔 胡驄馬를 타고 楓浦를 출발하여 務安에 사는 仲遂兄의 집에 투숙하다.

11월 11일 : 맑다. 徐僉使를 방문하니 술과 거문고로 맞아 준다. 저녁 때 떠

4) 今松都大路邊 有松都名娼眞伊墓 林悌爲平安都事 過松都爲文祭干墓墓 卒被朝評 (《於于野譚》卷之1, 娼妓, p. 42.)

5) 字子順號白湖又號謙齋羅州人兵使晉子復侄 丙子生員進士丁丑文科正郎天才絕人日誦累千言文章豪宕長於詩自號嘯癡樂遊名山大澤嘗人俗離山師大谷成運當時之士皆觀之於法度之外其所取者文詞而已李珥許筠楊士彥許其奇氣卒年三十九墓碣臨終謂妻子曰四夷八蠻皆爲帝國獨朝鮮不能自立入主中國吾生何爲也吾死何恨也 (《國朝人物志》二, pp.194~195.)

나 三日浦에 이르니 仲遂兄의 아들 垣이 뒤따라와 전별하는데 배 위에서 <醉吟一篇>을 짓다. 30리를 더 가 南社倉에 이르니 날이 이미 저물고, 德津橋에 이르니 목이 말라 물을 찾았으나 물이 너무 짜서 마시지 못하다. 月出山 아래에 이르니 큰 호랑이가 길을 막아 채찍질을 재촉하여 4경쯤에 鳩林마을 子中の 처가에 다다르다.

12월 5일 : 맑다. 저녁에 떠나 밤에야 子中·轡과 함께 康津땅 栗里마을 子忱의 집에 이르다. 시 한 수를 짓다.

12월 6일 : 맑다. 이른 아침 子忱·子中과 함께 金陵을 지나 聽潮樓에 올라 원을 만나고 오후에 두 동생과 함께 南塘浦에서 배에 몸을 싣고 莞島에 이르니 날이 저물다. 打鼓詞를 지나 梨津堡에 이르니 밤이 깊었다. 새로 부임하는 旌義縣監 李應泓도 나와 같이 배를 타다. 宣傳官 林潑이 와 작별하다.

12월 7일 : 맑다. 아침 식사 후 포구에서 두 동생 및 林宣傳官과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 작별하여 배를 타고 섬 사이를 지나다. 뱃사람들이 瑟頭詞에서 고사를 지내고 저물어 白島 선창에서 돛을 내리니 눈과 바람이 거칠다.

12월 8일 : 흐리다. 바람이 심하여 白島에 유숙하며 제주를 바라보다. 밤에 사공 德石乙로부터 왜구에게 포로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듣다. 밤에 沙寒島를 바라보다.

12월 9일 : 흐리다가 맑다. 붉은 해가 뜰 때 배를 띄웠는데 大靜·旌義縣의 물 나르는 배 1척과 康津·海南·珍島의 호송선이 각기 1척씩 뒤따르다. 큰 배에는 李侯帝가 裨將 2인, 泮黨 1인, 琴手 柳廷傑이 동승하다. 驪江사람 朴祖許가 그의 장인이 宗室에 무뢰하여 제주에 귀양갔다 죽었으므로 유골이라도 거두어 고향에 묻어드리려 하여 가던 참에 함께 배를 타게 하다. 都船主 1인과 뱃사공 2인과 수행 노복 및 射手들은 노를 잘 저었으며, 雜色軍을 합하여 10여인과 다섯 척의 작은 배를 탄 6, 70인이 바람이 드세어 배를 띄울 수 없다고 하나 거친 파도 속을 향해하여 날이 저물어 朝天館에 이르러 유숙하다. 배 위에서 <口占一律>을 짓다. 旌義 급수선은 무사히 도착하였으나 珍島船은 따라와 배를 붙이려 하는 순간 파도가 일어 바위에 부딪쳐 부서졌으나 생명은 구출되다. 나머지 세 척은 斜藪島 쪽으로 표류하였는데, 斜藪島는 火脫島와 마주 보는 섬이다.

12월 10일 : 흐리다. 朝天館을 떠나 제주향교에 謁聖하고 望京樓에서 부친을 뵈다. 通判 趙仁後, 教授 崔斯文 등이 축하연을 베풀어 준다. 며칠 후 長興·

林白湖의 <南溟小乘>攷

康津·海南船이 모두 도착하다.

12월 17일 : 흐리다가 맑다. 長律의 시를 지어 제주관관에게 보낸다. 黃柑을 처음으로 맛보다.

12월 19일 : 맑다. 冲菴 金淨의 謫居址를 찾아가 <五言長律>을 짓다.

12월 20일 : 맑다. 동쪽 望峰에 올라 바다를 구경하고 守旣이 보낸 기생에게서 술대접을 받다.

12월 22일 : 官馬 세 필을 마련하여 한 필은 내가 타고 한 필은 柳廷傑이, 그리고 다른 한 필은 여행에 필요한 물자들을 싣고서 하인 네 사람, 말 이팔 사람, 小奴, 牧童, 官奴, 피리 불 사람 등을 데리고 제주 관광에 나서 朝天館에 이르러 배 떠나기를 기다리는 旌義고을 원과 술잔을 주고 받다. 金寧浦에 이르러 100세된 노인들과 이야기하다. 2경에 別防城에 이르러 旌義太守의 대접을 받다. <思仙謠>를 짓다.

12월 23일 : 흐리다. 아침에 別防城을 나서 柳廷傑과 함께 城山島를 구경하다. 城山에서 기다리는 旌義고을 李縣監과 牛島窟을 구경하다. 밤에 현감으로부터 술대접을 받다. 林亨秀節制使의 시에 화답하는 시를 짓다.

12월 24일 : 맑다. 40리를 더 가 주막에서 꿀나무를 보고 시를 짓다. 初更에 西歸浦防護所에 투숙하고 시를 짓다.

12월 25일 : 거센 바람이 불다. 아침식사 후 天池潭을 구경하다. 李縣監과 작별하고 10여리를 더 가 大靜縣으로 들어가 高監司의 옛집을 찾다. 小加內川을 건너 東海防護所를 지나 天帝淵을 구경하다. 길에서 尊者菴에 있다는 한 스님을 만나고, 甘山을 지나 山房窟寺를 구경하다. 고을 원 林起文, 驪江사람 朴祖許 등과 술자리를 함께 하다.

12월 26일 : 맑다. 驪江사람과 함께 松岳山에서 놀다. 30리를 더 가 제주목 경계의 晚早里石窟을 구경하여 明月防護所에서 묵다.

1578년 1월 26일 : 막내동생 侲과 처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五言古詩>를 짓다.

1월 27일 : 늦게 明月을 떠나 涯月防護所를 지나서 都近川에서 牙將 文德壽·林世英의 술대접을 받다. 西門으로 들어가니 부친이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물러나니 밤 2경이었다. 제주는 漢拏山이 솟아 있고, 남쪽에 旌義縣과 大靜縣이 있다. 朝天館·別防·水山 세 防護所가 서쪽과 북쪽에 있으며, 남쪽에는 西歸와 東海防護所가 있다. 제주는 中原과 倭

와의 사이에 있어 왜놈이 中原을 왕래할 때는 제주와 楸子 사이를 지난다. 섬 주위는 500리에 불과하며, 자갈로 덮여 기름진 땅이 없으며, 廣壤땅에는 三姓穴이 있고 활터가 있다. 산과 들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있어 밭 들레에 돌담을 쌓으며, 집에도 돌로 울타리를 만들고 墉으로 문을 만든다. 高夫文 세 성씨가 우마 1,000 마리를 갖고 있으나 침실에는 온돌이 없다. 남자는 아내를 취하는데 많으면 8, 9부인까지도 취한다. 부녀자들은 치마를 입지 않고 삼실로 짠 천으로 그곳을 가린다. 통나무를 파서 통을 만들고 물을 지어나르는데, 나르는 것은 여자들이다. 말은 문자와 혼잡되어 남자를 높여서 官官이라 쓰며, 한문의 음을 많이 쓴다. 귀양 온 譯官 申長齡은 이 섬이 말소리는 중국의 말과 흡사하다고 하다. 해산물은 복어와 옥돔이 많으며, 곰·호랑이·이리는 없고 토끼가 있다. 고사리는 2월에 캐고, 과실은 橘柚가 많다. 漢拏山 북쪽은 북풍이 심하고 남쪽은 따뜻하다. 시 한 수를 짓다. 제주 烈婦인 私奴 連斤의 아내에 대한 <千德傳>을 짓다. 여관에서 <寢屏詩>를 짓다.

2월 5일 : 漢拏山에 오르는 꿈을 꾸고 시 한 수를 짓다.

2월 10일 : 흐리다. 귀양 온 사람 및 柳廷傑과 함께 西門을 나서 都近川 상류와 翠微峰을 지나 尊者菴에 이르니 淸淳이라는 스님이 맞는다. 尊者菴에서 <漢拏長律>을 짓다.

2월 11일 : 맑다. 五百將軍洞을 구경하고 <步虛詞>를 짓다.

2월 12일 : 흐리다. 구름이 끼어 漢拏山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尊者菴에 머물며 <白雲名篇>을 짓다.

2월 13일 : 바람이 불고 안개가 끼다. 尊者菴에 머물며 구름이 걷히기를 비는 <揆雲歌>를 짓다.

2월 14일 : 尊者菴에서 큰 비로 간혀 <揆雲歌>를 읊다.

2월 15일 : 날이 개어 일찍 아침식사를 하고 靈谷을 지나 漢拏山 정상에 오르다. 高山을 지나 頭陀寺 雙溪菴에 머물며 시 한 수를 짓다.

2월 16일 : 맑다. 冲菴遺墟에 들려 시 한 수를 짓다. 제주의 남정네들은 배에서 죽어 돌아오지 못하는 이가 1년이면 100여인이기 때문에 여자가 많다. 시골 여자들은 매년 3월 援兵이 들어올 때 화장을 하고 술을 차려 別刀浦에서 이들을 맞아 가까이 지내다가 8월이 되어 이들이 떠날 때는 <迎送曲>을 짓는다. 龍頭岩·翠屏潭·毛輿穴을 찾다.

2월 그믐날 : 동풍이 불다. 別刀浦에서 부친을 작별하고 楸子島 黃魚浦를 지

林白湖의 <南溟小乘>攷

나 館頭浦에 정박하다. 楸子島의 지리적 위치를 서술하다.

3월 5일 : 고향에 도착하다. 5일 후 北征길에 오르다.

1.1.2. 地所

앞의 일정에 따라 白湖의 노정을 3단계로 나누어 고향에서 제주까지, 제주기행, 제주에서 고향까지의 노정을 통한 지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고향에서 제주까지의 노정으로, 宣祖 10년(1577년) 11월 3일 楓浦를 출발-務安(11월 3일)-三日浦(11월 11일)-南社倉-(11월 11일)-德津橋(11월 11일)-日出山 밑(11월 11일)-栗里(12월 5일)-金陵(12월 6일)-聽潮樓(12월 6일)-南塘浦(12월 6일)-堯島(12월 6일)-打鼓詞(12월 6일)-梨津堡(12월 6일)-瑟頭祠(12월 7일)-白島(12월 7일)-朝天館(12월 9일)-濟州鄕校(12월 10일)-望京樓(12월 10일)에서 부친을 뵈움.

둘째는 제주 기행으로, 12월 22일 西門을 떠나서-朝天館(12월 22일)-金寧浦(12월 22일)-別防城(12월 22일)-城山(12월 23일)-牛島(12월 23일)-西歸浦防護所(12월 24일)-天池潭(12월 25일)-高監司의 옛 집(12월 25일)-小加內川(12월 25일)-東海防護所(12월 25일)-天帝淵(12월 25일)-甘山(12월 25일)-山房窟寺(12월 25일)-大靜고을(12월 25일)-松岳山(12월 26일)-晚早里石窟(12월 26일)-明月防護所(12월 26일)-涯月防護所(1578년 1월 27일)-望海亭(1월 27일)-都近川(1월 27일)-西門(1월 27일)-都近川(2월 10일)-翠微峰(2월 10일)-尊者菴(2월 10일)-五百將軍洞(2월 11일)-尊者菴(2월 12일)-靈谷(2월 15일)-漢拏山 정상(2월 15일)-高山(2월 15일)-頭陀寺 雙溪菴(2월 15일)-冲菴遺墟(2월 16일)-龍頭岩(2월 16일)-翠屏潭(2월 16일)-毛興穴(2월 16일)을 구경함.

셋째는 제주에서 고향까지의 노정으로, 2월 그믐날 別刀浦에서 출발-楸子島(2월 그믐날)-黃魚浦(2월 그믐날)-館頭浦(2월 그믐날)-고향(3월 5일)에 도착.

이상에서 첫째의 고향에서 제주까지의 노정에서는 楓浦를 출발한 것이 宣祖 10년 11월 3일이고, 康津땅 栗리에 12월 5일, 堯島에 12월 6일, 그리고 제주 朝天館에는 12월 9일 도착하였다. 고향에서 제주까지는 37일이 걸린 셈이며, 서술된 지소들만도 20여 군데나 되고 있다. 둘째의 제주 기행에서는 西門을 출발한 것이 白湖가 제주에 도착한지 14일이 지난 12월 22일이며 門月防護所에 12월 26일 도착하여 5일간의 일차적인 제주 기행을 한다. 이차적인 기행은 宣祖 11년 1월 27일 涯月防護所 등을 구경한 것이고, 3차적인 기행은 2월 10일 漢拏山 정상에 오르기 위해 尊者菴 등을 비롯하여 2월 16일 毛興穴 등을 관광

한 7일간의 노정이다. 따라서, 白湖는 3차에 걸친 제주 기행을 통해 14일이 소요되었는데, 나열된 지소들은 30여 군데가 된다. 셋째의 제주에서 고향까지의 노정에서는 제주 別刀浦를 출발한 것이 宣祖 11년 2월 그믐날이고, 고향에는 3월 5일에 도착하였다. 제주에서 고향까지는 6일이 걸린 셈으로 고향에서 제주에 올 때에 비하여 훨씬 일정이 적게 소요되었으며, 지나친 지소들도 5군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南溟小乘>에 나타난 지소들은 56군데나 되고 있어 비교적 상세하게 그의 노정이 기록되어 있다.

1.1.3. 人名

이제 각 일정에 나타난 인명을 등장인물·인용인물 순으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주된 등장인물은 白湖 자신이지만, 가끔 나타나 白湖와 대화를 주고 받는 자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인용인물은 한 번의 대화도 나타남이 없이 기록상에 나타난 인물들을 말한다. 그리고 동일인물이 반복해서 나타날 경우는 괄호 속에 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일정	인물	등 장 인 물	인 용 인 물
1977년 11월 3일		①白湖(嘯巖)	①濟州使(父親·嚴親·恭殿) ②小溪(下人) ③仲遂兄
11월 11일	◦(白湖)		④徐僉使 ◦(仲遂兄) ⑤垣 ⑥子中
12월 5일	◦(白湖)		⑦嘯 ◦(子中) ⑧子忱
12월 6일	◦(白湖)		◦(子忱) ◦(子中) ⑨邑宰(康津体) ◦(兩弟：子忱·子中) ⑩李應泓(旌義李侯：旌義新倅) ⑪林潑(宣傳)
12월 7일	◦(白湖)		◦(林宣傳) ⑫舟人
12월 8일	◦(白湖)	⑫德石乙	⑬倭冠 ⑭酋長
12월 9일	◦(白湖)	⑬姜連山	◦(李侯帝) ⑮裨將 ⑯伴党 ⑰李繼(營裨將) ⑱柳廷傑(琴手) ⑲朴租許(羅江客) ⑳妻父 ㉑都船主(姜連山)



林白湖의 〈南溟小乘〉攷

일정	인물	등 장 인 물	인 용 인 물
			㉔篙工 ㉔奴僕 ㉔射手 ㉔雜色軍 ◦(父親)
12월 10일	◦(白湖)		◦(哺) ◦(恭殷) ㉔趙仁後(通判·賢後·主倅) ㉔崔斯文 ◦(父親)
12월 17일	◦(白湖)		◦通判
12월 19일	◦(白湖)		㉔牧官 ㉔冲菴 ◦賢侯(趙仁後) ◦(遠客：白湖)
12월 20일	◦(白湖)		◦(主倅：趙仁後) ㉔妓人
12월 22일	◦(白湖) ④百歲者		◦(父親) ◦(下人) ㉔牧童 ㉔吹笛者 ◦旌義太守 ◦(柳廷傑) ㉔小奴 ㉔官奴 ㉔旌義舊倅
12월 23일	◦(白湖) ⑤騎將		◦(柳廷傑) ㉔德今 ◦(主倅) ㉔文應辰 ◦(旌義李侯) ◦(篙工) ◦紅奴 ㉔林亨秀(節制使)
12월 24일	◦(白湖)		◦(主倅) ◦(李侯)
12월 25일	◦(白湖) ⑥僧(淸淳)		◦(二客：文應辰·柳廷傑) ㉔大靜縣主倅(林起文) ㉔大靜裨將 ◦(林起文) ㉔高監司 ◦(朴祖許)
12월 26일	◦(白湖)		◦(二客) ◦(主倅) ◦(驢客) ㉔行人
1578년 1월 26일	◦(白湖)		㉔侘(少子) ㉔婦人(慈母) ㉔兄 ◦(嚴親) ◦慈母
1월 27일	◦(嘯癡)		㉔異人

일정	인물	등장인물	인용인물
			㉔ 文德壽      ㉕ 林世英 ◦ (父親)      ㉖ 申長嶺 ◦ (趙仁後)    ㉗ 連斤 ◦ (千德)      ㉘ 流寓者 ㉙ 明月所旅師   ㉚ 金淸
2월 5일	◦ (白湖)		
2월 10일	◦ (白湖)		㉛ 山只      ◦ (父親) ㉜ 謫客      ◦ (柳廷傑) ㉝ 金禮英    ◦ (淸淳)
2월 11일	◦ (白湖)		◦ (金禮英)    ◦ (大靜倅) ◦ (稗將)
2월 12일	◦ (白湖)		
2월 13일	◦ (白湖)		◦ (通判)      ◦ (二客)
2월 14일	◦ (白湖)		◦ (二客)      ◦ (淸淳) ㉞ 韓吏郎
2월 15일	◦ (白湖)    ◦ (淸淳)		◦ (山只)      ◦ (小溪) ◦ (旌義倅)
2월 16일	◦ (白湖)		㉟ 杜陵      ◦ (沖菴) ◦ (趙侯)
2월 그믐날	◦ (白湖)		◦ (父親)      ◦ (牙門) ◦ (稗將)      ◦ (篙工) ◦ (庚津倅)    ㊱ 伴人
3월 5일	◦ (白湖)		㊲ - ㊳ 二曾

1.2. 漢詩의 插入

〈南溟小乘〉에는 모두 24수의 한시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4개월 동안의 여정 중 기록된 일정이 1개월 남짓인 것을 볼 때 거의 매일 한 편의 시를 지은 셈이 된다. 이 가운데 林亨秀節制使의 시 한 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23수는 백호가 지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白湖集〉에도 700여 수의 한시가 전하는 것으로

봐서 얼마나 그가 한시에 능통했는지를 입증해 주고 있다. 시제를 붙일 수 있는 것만도 〈醉吟一篇〉·〈口占一律〉·〈五言長律〉·〈思仙謠〉·〈五言古詩〉·〈寢屏詩〉·〈漢拏長律〉·〈步虛詞〉·〈白雲名篇〉·〈揆雲歌〉·〈迎郎曲〉·〈迎送曲〉 등 12수나 된다. 이 중 대표적인 몇 편을 소개한다.

우리 나그네 되어 타향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데  
그대는 나라 일로 왔고 나는 어버이 뵈러 왔네.  
고향 소식 끊기어 돌아갈 날은 멀고  
푸른 꿀 노란 꿀이 겨울인 데도 봄인 듯하구나.  
밀물의 바닷가에 바람 불어 눈 길히니  
밤 깊은 관청집에 달이 비쳐 더욱 쓸쓸하구나.  
구름 걷힌 푸른 하늘 바라보며  
홀로 높은 누각에 올라 북쪽 하늘 바라보네.<sup>6)</sup>

이는 12월 17일날 通判에게 보낸 七言律詩로서, 12월 10일 望京樓에서 아버님을 뵈 백호는 通判 趙仁後가 축하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에 대한 답례형식으로 써 보낸 시이다. 우선 작품 표면의 진술에서 보면, 공간에 있어 起에서는 '타향', 轉에서의 '바닷가'·'관청집', 結에서의 '누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은 承에서 또 다른 공간 '고향'과 변별된다. 음식에 있어 起에서의 '술'과 承에서의 '黃柑'으로 이들은 모두가 '타향'·'바닷가'·'관청집'·'누각'에 귀속된 것들로서 '고향'과는 대립적 인식을 갖게하는 시적 매개물이다. 행위에 있어서는 起의 '술을 마시다', 承의 '黃柑을 바라보다', 轉의 '달빛을 바라보다', 結의 '누각에 올라 북쪽 하늘을 바라보다'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시적 자아는 공간·음식·행위에 있어 철저히 타향이라는 세계에 지배당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향과는 격리되어 있다. 그러기에 작품내적 자아로서의 인식과 정서가 承에서처럼 '더욱 쓸쓸하다'로 언표되어 외부적 요소인 작품외적 세계에 의해 작품내적 자아와 작품외적 자아가 부정적 의미를 띠게 된다. 이들 사실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6) 爲客蠻鄉其一樽 君能酬國我寧親 斷鴻高角無歸夢 綠橘黃橙有別春 潮入海門風捲雲 野殘官閣月愁人 瘴雲飛盡遙天碧 獨上爲樓望北辰

구분	구 성	起	承	轉	結
작품요소	공 간	타향	공간	바닷가·관청집	누각
	음 식	술	黃柑		
	행 위	술을 마시다	黃柑을 바라보다	달빛을 바라보다	누각에 올라 북쪽 하늘을 바라보다
추의상적미	세 계	제주	제주	제 주	제주
	정 서	나그네의 정서이다	돌아갈 날은 멀다	쓸쓸하다.	혼자이다.
	자 아	외부(부정)	외부(부정)	외부(부정)	외부(부정)

슬프다 충암선생이여  
 평생토록 공자를 공부했건만  
 세상을 건질 그 뜻이 헛되어  
 무더운 곳에 외로운 죄수의 몸이 되었던가.  
 혼백은 멀리 고향땅으로 갔으나  
 황폐한 성에 한 두덕 흔적이 남았구나.  
 어진 원이 새로 세운 사당에  
 멀리서 온 나그네 와서 노니네.<sup>7)</sup>

12월 9일 冲菴 金淨이 귀양와 살던 옛터가 매우 경치가 좋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둘러보고 지은 <五言長律>이다. 冲菴은 1519년 己卯士禍 때 趙光祖 등과 함께 투옥되었다가 錦山에 杖配되고, 다시 제주에 安置되어 후에 賜死되었다.<sup>8)</sup> 평생토록 공자의 가르침을 공부하여 세상을 건질 꿈을 키웠으나 그것이 잘못되어 죄수의 몸으로 고향 멀리 絶海孤島에서 세상을 떠났으니 이 어찌 슬프고 허망하지 않겠는가고 冲菴을 애도하며 지은 시이다. 작품 표면의 진술에서 볼 때, 공간에 있어 承에서는 ‘무더운 곳’, 轉에서는 ‘황폐한 성’, 結에서는 ‘사당’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은 轉에 나타난 또 다른 공간 ‘고향땅’과 변별된다. 작품내적 세계인 시적 인물로는 起의 ‘冲菴先生’, 承이 ‘죄수’, 轉의 ‘혼백’과 結의 또 다른 작품내적 세계인 ‘어진 원’이 작품내적 자아인 結의 ‘나그네’와 변별된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요소에 따라 느끼는 정서 또한 起의

7) 痛哭冲菴老 平生學孔周 經綸空消志 炎燿竟孤囚 故國魂千里 荒城迹一丘 賢候新廟祝 遠容此來遊  
 8) 韓國人名大事典編纂會編, 《韓國人名大事典》, 新丘文化社, 1983, p.165.

‘슬프다’, 承의 ‘헛되다’, 轉의 ‘황폐하다’, 結의 ‘나그네의 정서다’ 등으로 인생의 무상함 표출하고 있다. 이것은 유배라는 작품외적 세계에 대해 갈등·대립되는 시적 자아는 역시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구성	起	承	轉	結
작요	공 간		무더운 곳	고향땅, 황폐한 섬	사당
품소	시 적 물	충암선생	죄수	혼백	원, 나그네
추의 상 적미	정 서	슬프다	헛되다	황폐하다	나그네의 정서다
	자 아	외부(부정)	외부(부정)	외부(부정)	외부(부정)

부인은 아들을 아꼈고  
 젖어미는 너를 유독 불쌍히 여겼네.  
 네 나이 6세 때에  
 슬프게도 어머니님 세상 떠나셨네.  
 형이 과거한 것도 몰랐었지,  
 오늘이야 너와 내가 처음으로 함께 하루를 지내는구나.  
 문득 어머니님이 우리를 기른 일을 생각하니  
 그 은혜를 갚고자 하나 끝이 없어라.  
 어머니님 살아계셨다면  
 오십세가 되시는데,  
 네가 경사를 읽는 것 보니 눈물이 나는구나.<sup>9)</sup>

이 시는 1578년 1월 26일 어머니를 6세 때 여의고 엄친 슬하에 있었던 막내 동생 惺과 처음으로 하루를 보낼 때 슬픈 생각이 나서 지은 <五言古詩>이다. 그래서인지 시종 思母의 정과 동생에 대한 형제애가 잘 나타나 있다. 작품 표면에 드러난 진술을 살펴보면, 시간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동생을 아꼈다’, ‘동생이 6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의 과거와 ‘오늘 너와 내가 하루를 보낸다’, ‘지금 어머니님이 살아계셨다면 오십세다’, ‘동생이 경사를 읽다’의 현재

9) 婦人愛少子 慈母偏憐所 汝年六歲時 哀哀失所恃 立墮七秋霜 兄課母不識 正月二十日 乃汝初度日 却念母劬勞 欲報息罔極 母若生存 行年爲五十 汝能讀經史 清晨對汝泣

가 변별되고 있다. 시적 인물에 있어서는 ‘부인’·‘젓어미’·‘어머님’ 등과 ‘아들’·‘너’ 등이 역시 변별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 표면적으로 느끼는 정서에 있어서 과거는 슬픈 것이며, 현재 또한 슬프게 느껴진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경사를 읽는 동생을 보니 눈물이 나기는 하지만 대견스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겠다. 이 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이들 사실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구성	전 반 부	후 반 부
	작 품	시 간	과 거
요 소	시적인물	부인·젓어미·너·어머님·형	너·나·어머님·우리
추상적	정 서	슬프다	눈물이 난다(대견스럽다)
의 미	자 아	외부(부정)	외부(부정), 내부(긍정)

### 1.3. <千德傳>의 挿入

고을에 烈婦가 있어서 林晉이 천거하고 관관 趙仁後가 아뢰어 門閭를 정표하여 주실 것을 청했고 백호가 지은 <千德傳>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千德은 제주 곽지사람 私奴 連斤의 처이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고 얼굴이 예뻐다. 결혼하여 부부생활 20년이 되었을 때 남편이 貢物을 싣고 육지로 가던 중 大火脫島와 楸子島 사이에서 배가 침몰하였다. 千德은 남편을 잃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3년 동안 上食을 폐하지 않았다. 朔望과 俗節 때는 大火脫島를 향하여 設位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하늘에 호소하여 통곡하니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 후에 죄인으로 귀양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를 탐내어 유혹했으나 듣지 않으므로 관가에 고하게 되었다. 大丈 80대를 맞게 하니 그녀는 거짓 순종하겠다고 말하여 물러나와서 親屬에게 말하기를 “그놈은 재물을 탐내어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여 옷 한 벌, 소 한 마리, 목면 30단을 바쳐 빌어서 그 일을 모면했다. 또 明月所旅師가 그 豪勢를 믿고 사람을 시켜 감언으로 그녀의 부친 金淸에게 미끼를 주고 許嫁를 받았는데, 千德은 그런 줄도 모르고 있다가 華燭하는 저녁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녀는 크게 통곡하며 그 집을 불태우고 다음 날 아침 목매어 죽으려 하였다. 마침 집안 사람들이 구원하였으므로 거의 죽었다가 소생하였다. 그는 스스로 머리

를 잘라 버리고 더러운 옷을 입어 죽으려 하니 그의 아버지 역시 어쩔 수 없었다. 千德이 나이 39세에 남편을 여의고 지금 60여 세가 되었는데 전후하여 강폭한 자의 침입으로 어려움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끝내 절개를 지켰다. 옛날의 열녀라 할 지라도 어찌 이보다 더하였으랴. 또한 효성이 지극해서 부친이 80여 세에 병으로 눕게 되자 千德은 옷을 벗지 않고 낮과 밤으로 약을 달여 올리니 郭支里 사람들도 그 효성에 모두 감복하였다.

마치 한 편의 단편소설과 같은 이 〈千德傳〉에 林梯는 스스로 다음과 같이 논평을 덧붙이고 있다.

千德은 남쪽 거처른 땅의 평범한 한 여자로 김이나 매는 것이 일상사였을 것이니 처음부터 규방의 법도를 들은 바도 없었을 것이요, 고작 걸쌈 짜는 게 업으로 어찌 女訓의 규범을 익혔겠는가? 그러나, 한마음으로 남편을 섬기고 節操로 특별히 세웠으니 보통사람으로는 견주어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天品이 純靜하여 배우지 아니하여도 능히 했으므로 性善說이 거짓이 아님을 알겠다. 오호라, 세상에 소위 남자들이 조그마한 이해 때문에 형제가 서로 다투고 벗끼리 배신하여 國政이 크게 어지러운 때로다. 危亂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나라를 팔아 먹는 자도 있고 아버지를 저버리는 자도 있으니 슬픈 일이다.<sup>10)</sup>

林梯는 논평에서 千德의 貞烈과 孝誠을 들어 性善說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2. 文獻的 價値

### 2.1. 地理

12월 8일의 기록에는 일본<sup>10)</sup> 한 지방인 五島의 지리에 대한 서술이 있다.

왜나라 어느 한 지방을 五島라고 하는데 제주에서부터 서풍이 불면 그리고 가고, 동풍이 불면 제주로 오기 마련인데, 4박4일의 거리이다.<sup>11)</sup>

10) 千德南荒一下女耳 鋤耘是事 初無閨門之範 紡織是業 豈習女訓之規 而其一心事人 節操特立有 非尋常之所 可擬議此 豈天質純靜 不待學而能 而性善之說 尤不可誣矣 嗚呼世之所謂男子者 一利害之間 而至於兄弟而相關 朋友而相倍 大則板蕩之時危亂之祭 賣國者有焉 亡親者有焉 而其不爲千德之罪人者 鮮矣 可哀也哉

11) 則倭稱五島 而自濟州西風往 東風來 可四晝夜程

12월 9일의 기록에는 斜藪島의 지리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 섬은 동쪽 바다 가운데 火脫島와 마주 보고 있는 섬인데 섬이 온통 절벽으로 막혀 있고 섬 북쪽으로는 낭떠러지로 둘러쳐져 있어 큰 배는 한 척, 작은 배는 두 척 정도 머무를 수 있다고 한다. 또, 섬에는 샘물이 하나 있다.<sup>12)</sup>

12월 23일의 기록에는 城山의 지리에 대한 언급이 있다.

성산은 마치 푸른 연꽃을 바닷물결에 꽂아 놓은 것 같지만 올라가 보니 들떠라며 주위는 성곽과 같은데 상봉은 평평하며 풀과 나무가 무성하다. 그 주위로는 오묘조밀한 奇峰들로 둘러 있다. 어떤 것은 돛대를 세운 것 같고 어떤 것은 천막을 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우산 같기도 하고, 또 짐승들 같기도 하여 온갖 형상을 이루 기록할 수 없다.<sup>13)</sup>

1월 27일에 기록되어 있는 濟州島의 지리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제주섬은 우리 나라의 남쪽에 있어서 한라산이 그 가운데 솟았고 산 양쪽으로 날개가 펼쳐져 있는 듯하다. 한일자로 제주의 한 嶺이 벌려 있는데, 북쪽은 바다에 임했고 두무악과 한라산을 마주하여 정의현이 왼쪽 날개의 남쪽에 있어 세진이 마치 솔의 발과 같이 북쪽과 동서 세 모퉁이를 지키고 있다. …(중략)…이 섬은 中原과 왜와의 사이에 있어서 왜놈의 도적이 중원을 왕래할 때 반드시 제주와 추자 사이를 지나게 되므로 섬의 동서가 요충지가 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방호소가 남쪽으로 모여 있지 아니한 것이다. 섬 주위는 500리에 불과한데, 바닷가는 물 얕고 칼날 같은 바위들이 섬을 에워두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왕래에 익숙하고 배를 잘 부릴 줄 모르고서는 반드시 배를 부수어 버릴 것이다. 섬은 온통 자갈로 덮여 기름진 땅은 한 조각도 없다. 광양땅에는 삼성혈이 있고 흙도 붉어 옥지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활터를 설치하여 무예를 닦는다.<sup>14)</sup>

12) 那島在東大洋 與火脫島(有大小島在西大洋)相對 山皆壁立 阻北崖迴抱 大船則一艘 小船則二隻 可以留泊 且島上有甘泉

13) 到所胃城山島者 如一朵(缺)蓮 挿出於海濤 之祭其上則古崖 周邊如城郭 其上平行 草樹生焉 其下巖巒奇怪 或如帆檣 或如(缺)室 或如幢蓋 或如禽獸 千之狀難以盡

14) 島在國之正南 而漢擊山峙其中 張左右翼 如一(缺)鋪濟州一嶺 在北而際海 正



林白湖의 〈南溟小乘〉攷

그리고, 2월 그믐날의 기록에는 楸子島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제주에서 여기까지는 수로로 500여 리인데 추자 북쪽은 섬들이 있는 고로 바람을 만나도 추자에 정박할 수 있고 추자 이남은 섬이라곤 하나도 없어 서쪽으로 표류되면 흑시 중원에 이르고 동쪽으로 표류되면 왜국에 이른다.<sup>15)</sup>

따라서, 五島·斜藪島·城山·濟州島·楸子島 등에 대해 지리 내지는 지리적 위치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2.2. 氣候

12월 25일의 기록에는 天池潭의 기후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고 있다.

여기는 섬 가운데서도 가장 따뜻한 곳인데다 또 한라산 남쪽에서도 음풍 들어간 곳이라 항상 따뜻하고 화창한 듯하다.<sup>16)</sup>

또한 1월 27일의 기록에는 제주의 날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한라산 북쪽에는 항상 북풍이 심하다. 팔방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거세기 때문에 제주 경내의 나뭇가지가 모두 남쪽을 가리킨다. 만약 파도가 칠 때는 분말이 비오는 듯하여 10리 안의 초목은 모두 짙은 기운에 젖는다. 정의와 대정 두 현의 지경은 예로부터 북풍이 심하지 않은 편이라 한라산 북쪽으로는 비록 하늘이 무너지고 바다가 울렁거리고 있을 지라도 한라산 남쪽은 풀잎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기는 하나 瘴氣는 심한 편이다.<sup>17)</sup>

與頭無岳漢拏(缺)……蓋島間於中原倭島 而倭冠之往來原也 必由濟州楸子之間 則島之東西爲要衝 而防護之聚不在南可乎 一島周圍不過五百里 海潛水淺 處巖如劔戟環島 皆然故若非諳熟來往善於操舟者 則必碎破舟航焉 遍島皆沙磧 無一片饒土 而廣壤之野三姓之穴也 厥土赤壤(缺)異陸地 故設射場試武藝焉

15) 濟州至此水程可五百餘里 而楸子以北則往往有島嶼 故雖漂風而勢可依泊楸子以南則絕無島嶼 西漂則或可至中原 東漂則或可至倭國

16) 蓋島中元暖 而洞夫又在漢拏之南而又凹陷 故恒得十分陽和也

17) 漢拏以北恒多北風 八方之風(缺) 故濟州境樹木皆內指 若縹每風起(缺) 十里之間 草木皆着鹹氣 二縣之境亘古無北風(缺) 掀夫倒海而山南 則細草不動故地暖一倍 而瘴氣太甚矣

### 2.3. 歷史

1월 27일의 기록에는 제주의 방호소 설치에 기술이 있다.

조천관·별방·수산 세 방호소가 섬의 동과 북에 벌려 있고, 애월·망월·차귀 세 방호소가 서쪽과 북쪽에 벌려 있다. 남쪽에는 다만 서귀와 동해 두 방호소가 있을 뿐이다.<sup>18)</sup>

또, 1월 27일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원나라 때에 중국 사람들이 이 섬을 빼앗아 관청을 설치했던 때가 있어서 중국과 서로 섞여졌기 때문일까.<sup>19)</sup>

### 2.4. 景勝

12월 23일의 기록에는 牛島窟을 구경한 내용이 있다.

우도의 형상이 마치 소가 누워 있는 것과 같은데 남쪽 벼랑에 무지개와 같은 돌문이 보인다. 돛을 달고서도 올라갈 수가 있다. 그 안은 자연히 집이 되어서 용선 20여 척쯤이라도 거뜰히 들어갈 만큼 넓다. 샷대질을 하여 들어가 보니 피이한 새가 보인다. 백로 같으나 그보다 작고 빛은 미청색이다. 수백 마리가 분분히 날아다닌다. 굴이 남쪽을 향하여 바람을 등져 따뜻하기 때문에 바닷새들이 서식하는 것이다. 외굴에 비하여 작고 괴이하게 돌아가는 물빛이 신기하여 귀신이 있는 듯하다. 올라다 보니 흰 돌이 단단하여 달과 같은데 그것이 희미하게 물에 비쳐 대접인 듯, 고리인 듯, 거위알인 듯, 탄환인 듯, 물 위에 별과 같이 흩어진다. 굴 안이 온통 푸르기 때문에 흰 돌이 벽과 같이 보이는 것일까. 시험 삼아 피리를 불었더니 처음에는 은은하게 들리더니만 나중에는 우뢰치는 소리와 같다.<sup>20)</sup>

18) 朝天館別防水山三所列東北隅 涯月望月遮歸三所列西北隅 而南面則只有西歸東海

19) 曾前元朝奪據 置官於此 故與萃相雜而然耶

20) 厥島形如臥牛 南崖有石門如虹 張帆可入 而其內窟宇天成 可藏黃龍二十軸窟將窮又有一重石門 狀如鑿開僅通一船 乃搖棹而入 有柁龕似鷺 而小色微青 數百爲群紛紛出 蓋窟向南皆風 而暖故海來棲也 比外窟差小 而環詭過之水光(缺)

林白湖의 〈南溟小乘〉攷

12월 25일의 기록에는 天池潭의 경치에 대한 기록이 있다.

말을 벼랑에 매어두고 潭으로 내려가니 주위가 수백 보이고 깊이는 알 수가 없다. 두 줄기 폭포가 떨어지는데 높이는 백장이 됨 직하고 소리가 우뢰와 같다. 못의 양 옆으로는 동백이 찬란하게 피어 있어 붉은 휘장을 드리운 듯한 양쪽 절벽이 옥병풍 같이 바다로 내려가는데, 5리쯤 가서 뚝 끊기고 안개가 맑게 끼어 구비마다 淸眞하고 고요하다. 바람 한 점 없고 풀과 나무는 봄과 같다.<sup>21)</sup>

또, 12월 25일의 기록에는 山房山에 대한 경치가 기술되고 있다.

산방산은 큰 물결이 삼킬 듯한데 자세히 쳐다보니 산인 듯한 큰 돌이 솥을 뒤엎어 놓은 듯하다. 산허리에 굴이 있어 석식을 이뤘다. 맨 안쪽에 신령스러운 줄기 하나가 바위 사이에 걸 찍혀져 있고, 그 안에 층들이 거처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절을 굴사라 하고 산을 산방이라 이름 붙인 것인가.<sup>22)</sup>

12월 26일의 기록에는 松岳山의 경치를 기술하고 있다.

산세는 우뚝한데 평평한 들판이 남쪽으로 달리다 끊겼고, 그 위는 손바닥 모양을 이뤘다. 북쪽에 기이한 바위가 우뚝 솟아 있어 門路가 되어 있다. 들문을 좇아 바위 구멍으로 들어가면 우산 같은 봉우리가 벌려 있는 것이 조물주가 작난하여 놓은 듯하다. 더욱 괴이한 것은 짝인 듯한 절벽이 천 장이나 되는데, 또 두 바닷물이 짝아먹은 것 같았고 앞에 한 무더기의 모래가 쌓여 산이 된 봉우리가 있었다. 그 위에 바닷물이 오고 간 흔적이 있다.<sup>23)</sup>

---

疑有鬼神 仰見白石團團如月 而微有茫燿 又如碗如環如輪如彈丸者 錯落如星斗 蓋潭窟青蒼 故白而得爲星月之狀也 試吹笛 則初成咽咽之音旋作轟轟之響

21) 乃舍馬攀崖 而下潭 周數百步 深不可測 雙瀑飛落 長可百丈 聲若雷霆 潭左右冬柏爛開 如紅帳兩崖作玉屏 到海五里而斷 晴霞授處曲曲清幽 微風不動草樹長春

22) 乃湧出於巨浪春撞之際 潭山一石望如覆釜 山腰有窟 自成石室 極其弘敞 靈原一孤點 滴巖間 繼徒依之 結數椽而居焉 因(缺)窟寺山以山房名者亦以此耶

23) 松岳山勢斗起 平野南馳而斷 其上平如掌樣 北有奇巖立 假一石門路 徒右問入 短宙 若假山縱橫列置 眞造化翁戲劇處也 尤可怪者斷壁高可千仞 皆爲波濤噬食之狀 前有一朵積沙爲峰 而上有海水往來之痕

그리고, 같은 날인 12월 26일의 기록에는 晩早里石窟에 대한 기록이 있다.

煙臺길 좌우에 동서로 석굴이 있는데, 두 개의 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석굴은 겨우 50여 걸음 정도이나 동굴은 뿔불을 들고 800보를 걸어야 한다. 더 깊이는 들어갈 수 없으므로 깊이를 측량하기 어렵다. 또, 바다쪽으로 3, 4리쯤 가서도 굴이 있는데, 크기가 동굴과 비슷하다. 거기에도 굴 속 깊숙한 곳에 오래된 뼈가 쌓여 있었다. 도적들이 우마를 도적질하여다 여기에서 도살한 것이라고 한 행인이 들려줬다. 세 개의 굴에 모두 石鍾乳가 있으며 응결된 것이 아래로 드리워졌다.<sup>24)</sup>

2월 11일의 기록에는 五百將軍洞의 경치를 기술하고 있다.

이곳을 두고 일명 靈谷이라 하기도 하는데, 층이 진 뿔부리가 시원스럽고 옥 같은 병풍이 둘러쳐져 있는데, 그 사이에 폭포가 세 갈래로 흘러내린다. 그리고, 바로 그 밑으로 옛 단이 있다. 단 위에 봉숭어나무가 심어져 있다. 단 위로 올라 산대를 놓고 앉아 남쪽 바다를 내려다 보니 바다색이 아득히 푸르다. 실로 이 섬 안 제일의 골짜기다. 또, 물가와 산 위로 사람처럼 보이는 기이하게 생긴 바위들이 서 있는 것이 무려 수 천, 수 백이니 이 골짜기 이름을 오백장군이러 함도 그럴 듯하다.<sup>25)</sup>

2월 15일의 기록에는 한라산 정상을 구경하여 그 경치를 기술하고 있다.

한라산 꼭대기에 오르고 보니 구덩이 같이 파진 곳이 못을 이루고 있다. 그 주위로 둘러쳐진 들계단이 7, 8리쯤 되는 듯하다. 내려다 보니 물은 유리 같이 맑은데, 깊이를 측량할 길이 없다. 못 주위로 흰 모래에 향기로운 풀이 늘어졌고 한 점의 티끌도 없다. 난소가 들리는 듯하고 지초를 보는 듯하다. 팔처럼 둥근 모양은 마치 무등산과 다를 바 없는데, 산이 크고 높기는 무등산의 배가 된다. 속담에 무등산과 형제를 삼았다는 말이 그럴 듯한 말이다. 산상의 돌들은

- 
- 24) 烟臺路在右有東西石窟 兩門相對西窟則僅五十餘步 東窟則持炬而八百餘步窟微低小不可入 故其深淺不可測 又向海三四里有窟 大與東窟敵 其深處枯骨雲積 行人曰 偷兒鬻盜牛馬 屠殺于此云大藥三窟皆有石鍾乳 其凝結者下垂
- 25) 洞一名靈谷 層巒皎潔環作玉屏 三道懸瀑倒瀉於其間 有古壇 壇上有獨樹桃花 乃於壇上籍叢竹而坐 俯視南溟一碧萬里 眞島中第一洞天也 又有奇巖人立於(缺)邊山上者 無慮千百洞之得號想以此耶

모두 적혹색인데 물빛은 붉은 빛을 띠어 이상하다.<sup>26)</sup>

### 2.5. 風俗

1월 27일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산과 들에는 천백 마리쯤 되는 수많은 짐승들이 메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밭을 일구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담을 밭 둘레에 쌓아 놓았다. 사람이 사는 집에도 모두 돌로 울타리를 쌓고 墻으로 문을 만든다. 高夫文 세 성씨가 우마 1,000마리를 갖고 있으나 칙실에는 온돌이 없다. 남자는 아내를 취하는데 많으면 8, 9 부인까지도 취한다. 부녀자들은 치마를 입지 않고 다만 삼실로 짠 천을 잘라 앞뒤를 꿰매어 허리만을 감아 그 곳을 가린다. 그리고, 통나무를 파서 통을 만들어 물을 지어 나르는데, 길거리에서 물을 지어나르는 것은 모두 부인네들이다.<sup>27)</sup>

2월 16일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시골의 아녀자들은 짝을 짓지 못하여 매년 3월 원병이 방수하러 들어올 때에 女輩들이 화장을 하고 술을 차려 별도포에 나가 기다린다. 원병이 육지에 닿으면 술을 권하고 서로 가까와져 그 집으로 맞아드려 지내다가 8월이 되어 방수를 마치고 떠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는 까닭에 영속곡을 지었는데 이 또한 變風之流이다.<sup>28)</sup>

### 2.6. 言語

1월 27일의 기록에는 제주의 언어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26) 到絶頂 則次陷爲池 石磴環達周可七八里 倚石磴俯視 則水如瑠璃 深不測 池畔有白沙香蔓 無一點塵埃之氣 人間風(缺)三千 疑聽鶯鶯 悅見芝草 其窟窮之形積(缺)恰以無等山 而高大則倍之 世傳無等與此爲兄弟 必而此也 山上之石 皆赤黑色 而沉水則浮易一異也

27) 山有獸野有畜千百 其群僂僂而行 故爲田畝者必積以石垣焉人家亦皆築石 爲墻牆以作門 巷雖高夫文三姓有牛馬千頭 而窮室無垠(缺) 殘疾男子而娶婦 多至八九 婦人無裙 但用麻索榮腰以尺布縱於索之前後 掩其陰而已鑿金木爲桶 負而汲水 閭巷之間 負薪水者 皆婦人也

28) 村巷之女鮮有伉儷 每歲三月援兵赴防之入也 女輩凝粧携酒 來待於別刀浦 至浦則勸酒 相狎迎至其家 八月罷防 而(缺)迎送 故乃作迎送曲 亦變風之流也

말은 왕왕 문자와 혼잡되어 남자를 높여서 官官이라 쓰고 土字·萩字는 모두 방언을 쓰지 않는다. 글자 쓰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한문의 음을 많이 쓴다. 귀양은 申長齡은 역관이었는데, 이 섬의 말소리는 중국말과 흡사하여 말달리는 소리와 같아서 더욱 분별할 수가 없다고 한다.<sup>29)</sup>

### 2.7. 產物

1월 27일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해산물은 복어와 옥돔이 많다. 곰·호랑이·이리는 없고 토끼의 별종으로 토끼에 비해서 몸집이 크고 다리가 긴 것이 있다. 고사리는 2월에 캐고 과실은 굴유가 많다. 그 종류가 아홉 가지나 되는데, 그 중 금굴이 가장 색과 맛이 뛰어나다.<sup>30)</sup>

그런데, 굴유 아홉 가지는 다음과 같이 附記로 기술하고 있다.

○유(柚) : 영남·호남 바닷가에 많다. 잎이 두텁고 작으며 열매는 가을에 익는데 껍질이 두텁다.

○당유(唐柚) : 나무는 유(柚)와 같고 꽃은 희다. 열매는 참외보다 조금 작다. 껍질의 두툼두툼한 것은 예자(荔子)와 같은데 화과보(花果譜)에 예자가 굴자가 아닌가 한다.

○감(柑) : 열매의 껍질이 얇다. 물기가 유자보다 적다. 색깔은 누렇게 맛은 달고 시다.

○유감(乳柑) : 감자(柑子)와 아주 비슷하다. 다만 조금 작고 껍질이 두껍고 맛은 달고 액이 많다. 색은 청황이며 푸른 빛이 매우 진하다.

○대금굴(大金橘) : 껍질은 감자(柑子)와 같고 황금색이며 유감(柚柑)만 하지만 맛은 그만 못하다.

○소금굴(小金橘) : 빛과 맛이 금굴과 같으나 열매가 아주 작다.

○동정굴(洞庭橘) : 금굴과 같으나 빛과 맛이 그만 못하다. 소금굴보다 조금 크다.

29) 言語往往雜以文字 若男子之尊者曰官官 若土字萩字皆不用方言 若不好字 用漢音此類(缺)多 謫人申長齡乃譯官也 嘗曰此島語音酷似中華 如驅馬之聲 尤不可分辨云云

30) 海錯則鰻魚玉頭魚爲多 獸無陵虎狐 兔之別種有大而脚 高者獾貳二月可采 而唯防風爲實果有橘柚多至九種 而唯舍橘色味俱絕

#### 林白湖의 <南溟小乘>攷

○청굴(靑橋) : 집질은 당유자 같고 작기는 동정굴 만하다. 빛은 푸르고 맛은 아주 시다. 겨울을 넘기고 여름이 되면 맛이 달고 액이 많다.

○산굴(山橋) : 청굴과 같으나 색이 노랗고 씨가 많으며 맛은 시다.

### IV. 結 言

이상에서 白湖 林悌의 <南溟小乘>을 고찰하였다. <南溟小乘>은 1577년 11월 3일부터 1578년 3월 5일 사이 약 4개월 동안의 제주기행을 그 내용으로 기록한 일기체 한문 기행수필로서, 白湖의 문학세계를 확충시킬 뿐만 아니라 당시 제주도 풍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金淨의 <濟州風土錄>이나 李健의 <濟州風土記>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제주 해로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언급되어 있어 해양지리적 자료의 가치도 크다. 지금까지 논의의 결과를 결론 삼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南溟小乘>에는 일정·지소·인명 등이 중요한 작품요소가 되고 있는데, 11월 3일에서 12월 10일까지의 고향에서 제주까지 일정에는 20여 지소가 나타나며, 12월 22일에서 다음해 2월 16일까지의 제주기행에서는 30여 지소, 그리고 2월 그믐날에서 3월 15일까지의 제주에서 고향까지는 5군데의 지소가 언급되어 있어 총 55군데의 지소가 나타나는데, 기행문학의 특성 및 조선조 제주 해로를 파악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된다. 또한, 인명에서는 白湖·德石乙·姜連山·百歲者·騎將·淸淳·申長齡 등 아홉 사람의 등장인물과 濟州使·小溪·仲遂兄·徐僉使·垣·子中·嘯·子恠·邑宰·李應泓·林潑 등 63명이나 되는 인용인물 등 총 70명의 작중인물이 나타나고 있어 그 어떤 작품보다도 많은 작중인물이 나타난다.

둘째, <南溟小乘>에는 모두 24수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林亨秀節制使의 시 한 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23수는 白湖의 작품으로 <白湖集>에 수록된 70여수의 한시와 함께 林悌의 한시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셋째, 광저시람 私奴인 連斤의 처 千德의 얘기를 기록한 <千德傳>은 한 편의 단편소설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백호의 단편문학적 특질을 이해하는 귀한 자료가 된다.

넷째, <南溟小乘>은 1500년대 제주도의 지리·기후·역사·풍물·풍속·언어·산물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당시 제주도의 풍물을 파악할 수 있

는 귀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24수의 한시를 전부 분석하지 못하고, 단지 세 수만을 감상한 것은 앞으로 이들 한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과제를 남겨두는 셈이며, 〈濟州風土錄〉·〈濟州風土記〉와의 대비 연구를 통해서 1500년대와 1600년대의 제주도 실상을 보다 더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